

오늘의 기사관

16일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개최식=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호남문화진흥회 회원확대운동전개 발대식=오전 7시 전남대학교 박물관 4층 시청각실.
▶주월중 금연교육=오전 1시30분 주월중 강당. 주월중 1·2학년 495명을 대상으로 실시.
▶광주·전남경총 제 796회 금요초연수회=오전 7시 센트럴호텔 4층. 송병준(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씨가 강사로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을 주제로 강연.
▶제 490회 장성아카데미=오전 4시30분 장성군청 4층 대회의실. 박원순 아름다운재단·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강사로 '이제 디자인이다! 독일에 배운다'를 주제로 강연.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 개최식

오전 11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웃음 특강=오전 11시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정병탁 한국웃음연구소 광주전남지부장이 '입술로 할 수 있는 멋진 일~오하하하! 웃음코드 살리기'를 주제로 강연.
▶폐전지제품 리사이클 2006 기념식=오전 3시 목포시 목포해역사령부 부두.
▶제 16회 청소년 열린문화희망마당=오전 4시 무안군 송달문화예술회관.
▶제 7회 진도군 고군면민 놀이마당=오전 10시 진도군 가거리 잔디구장.
▶어린이 난타 '오즈의 마법사'=17일~18일 오후 2시, 4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가족뮤지컬 '보물섬'=17일~18일 오후 2시, 4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제 12회 이보영 잉글리쉬 페스티벌=17일(토) 오후 1시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
▶진도 토요민속여행=17일(토) 오후 2시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대공연장.
▶죽녹원 상설 공연=17일(토) 오후 3시 담양군 죽녹원 야외무대. 일본인으로 구성된 '괘창전골'그룹이 1시간동안 록 공연.
▶월드컵 대구광주 New Vision 모색전 III =25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평화를 노래하는 시화전=30일까지 자미갤러리.
▶장애인의 예술여행전=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전시

월드컵 대구광주 New Vision 모색전 III =25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
평화를 노래하는 시화전=30일까지 자미갤러리.
장애인의 예술여행전=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공연

어린이 난타 '오즈의 마법사'=17일~18일 오후 2시, 4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인체 드로잉전=21일까지 무등갤러리 별관.
▶H-MAX 정기 회원전=7월5일까지 일곡갤러리.
▶6월 환경의 날 기념 '태양에너지 사진전'=22일까지 일곡도서관.
▶올해의 작가 '윤애근·정송규'전=7월16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본관 1층. 로비.
▶이스라엘 작가 데이비드 겔스타인 개인전=30일까지 가나아트 2층 공예관. 조카·오브제·테이بل·아트상품 등 13점 전시.
▶5·18 관련 그림 및 사진전=30일까지 5·18기념문화센터 전시장.

역사속의 오늘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태어남(1762)
▶미국 포드 자동차 회사 설립(1903)
▶시인 노천명 세상 떠남(1957)
▶소련, 브레즈네프를 국가원수로 선출(1977)
▶정부, 해외여행 자유화 확정 발표(1981)

뉴스퀴즈

16.2006 독일 월드컵이 지난 9일 오후 6시(한국시각 10일 새벽 1시)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독일과 코스타리카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개막 축포는 독일 왼쪽 수비수인 이 선수의 발끝에서 나왔는데,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 ①필리프 람 ②펠레
③마라도나 ④웨인 루니

참여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독일 월드컵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주였다. 인기 검색어 1위는 한국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사상 원정 첫 승을 거둔 13일 토고전. 이날 광주 전남대 후문과 월드컵 경기장, 서울 광화문 일대 등은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하는 4천700만 국민들의 붉은 불꽃열 열광의 도가니였다. 인터넷도 예외일 수 없었다. 한국팀의 승리로 경기가 끝난 뒤 인터넷에서는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한국대표팀에 대한 칭찬과 격려글을 비롯, 이천수와 안정환의 동점골·역전골 동영상과 관련평이 실재없이 올라왔다. 특히 이 경기와 관련, 역전골 이후 대표팀이 보여준 공 돌리기에 대한 논란도 많았다. 한국팀이 경기 종료 페널티 아크 정면 앞에서 얻어낸 프리킥 기회에서 백패스를 통해 공격 시도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이런 경기를 보기 위해 4년을 기다리게 아니다', '너무 한 것 아니냐' '축구를

한국 대표팀 공돌리기 찬반 의견 팽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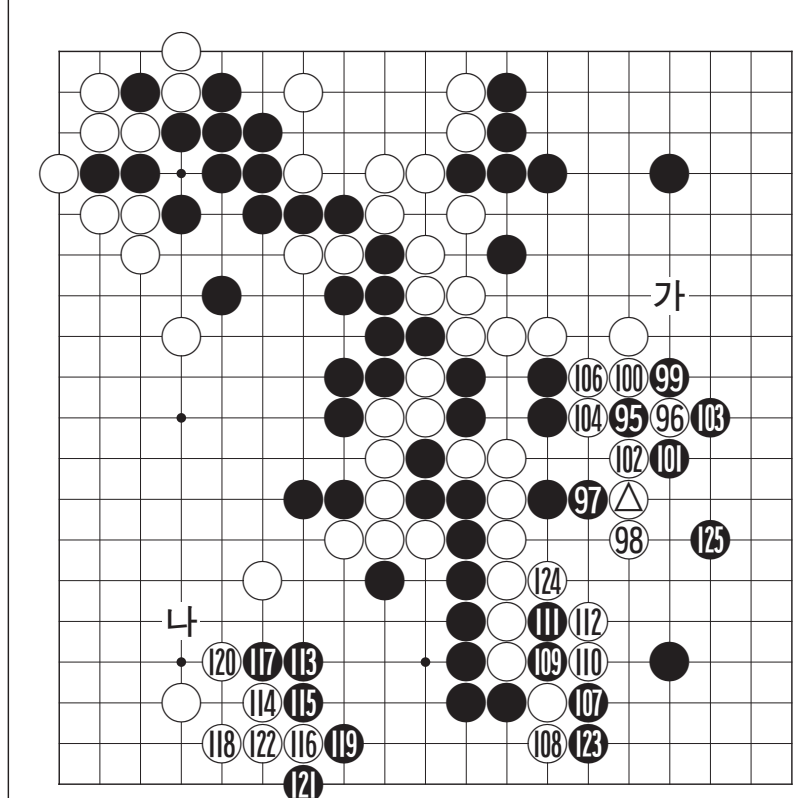
잘 모르는 소리다' 등 찬반 의견이 팽팽히 올라오고 있다. 또 뒤이어 벌어진 프랑스·스위스전과 브라질·크로아티아 등 최고 선수들이 펼치는 월드컵의 경기 결과(2위)와 히딩크 감독의 용병술 등으로 8분 동안 대역전 드라마를 펼친 호주와 일본전도 검색 빈도가 높았다. 고구려 텔레토비도 월드컵에 이어 높은 인기를 자랑하며 네티즌 사이에 오래내렸다. 고구려 텔레토비는 MBC 월화드라마 '주몽'을 어린이 프로그램인 '고고야 텔레토비' 오프닝으로 패러디해 만든 동영상으로, 주몽의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웹상에서 화제가 됐다. 허위 이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서울대 개교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중도에 물러나게 된 황라열(29·종교학과 4년)씨에 대한 소식도 화제가 됐다. 황 씨는 이같은 결정을 받아들인 뒤 13일 서울

대 포털 사이트인 '스누라이프'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힘든 심경을 내비쳤고 수천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외 지난 2004년 한국인 김선일씨를 비롯, 이라크에서 미군과 민간인에 대한 테러·납치를 주도해온 테러 조직 알 카에다의 이라크 최고지도자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40)의 사망 소식도 화제의 검색어에 올랐다. 이외 한·미 FTA 협상, 우리 공군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15K 추락, 공 2 등도 인기 검색어에 포함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금상성 검색어 (네트닷컴 제공)
1위 토고전 6위 F15K 추락
2위 월드컵경기결과 7위 공2
3위 고구려텔레토비 8위 싸이영원
4위 황라열 9위 알자르카위
5위 호주vs일본 10위 FTA협상



MBC 드라마 '주몽' 주인공들인 대소(김승수)·영모(원기준)·주몽(송일국) 등을 '고고야 텔레토비'로 패러디한 '고구려 텔레토비'가 화제다.



제15회 光日盃

맹렬한 추격전 2회전 제 6보(95~125)
백 김형태 <광주시교육청>
흑 박명수 <서광주농협>

백 ㉞의 금수를 당해서는 흑 5점의 퇴로가 사실상 차단됐다. 박명수 5단은 99로 짓히고 103으로 뽀뽀내리며 수습에 나선다. 하지만 흑 5점이 잡혀서 박 5단의 공격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맛을 다신 박 5단은 109로 하변 백을 끊어갔으나 110와 112 등으로 여기에서도 상당한 손해를 봤다. 수순 중 백도 106으로는 '가'에 지켜 책을 막아야 했다. 그랬으면 변수가 없었다. 흑이 113으로 하변을 지켰을 때 백 114가 흑을 압박하는 좋은 수였다. 김형태 5단은 이쯤에서 바둑이 끝났다고 생각한 탓인지 116의 실착을 범하고 말았다. 이 수로는 122의 곳에 내려서서 선수를 잡고 좌하귀에 말뚝을 쳐야 했다. 120도 '나'에 지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백이 방심한 사이 박 5단이 맹렬한 기세로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 124도 125의 곳에 두어야 했다. 흑이 125로 우변을 굳혀 반상에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일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윤준상 4단, 고근태 5단 제압
윤준상 4단이 지난 13일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6기 오스카코리아배 신예연승희강전 본선에서 고근태 5단을 꺾었다. 윤 4단은 지난 8일 3연승에 도전한 허영호 5단을 제압한 데 이어 이날 승리를 거둬 따라 2연승으로 결선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3연승에 도전한 윤 4단은 박병규 5단과 격돌한다. 윤 4단은 한국 프로기사 랭킹 14위에 올라있다. 대회 우승상금은 1천800만원이다. 3연승을 거둬 경우 100만원의 연승 상금이 지급되며 이후 1승씩 거둬 때마다 100만원씩 보너스가 주어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6일(음 5월 21일 丙子)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corresponding horoscope text.

굿모닝 잉글리쉬 <669> 오하이오 니혼고 <669> 니하오 쫑구워 <387> 한자 이야기 <987>

It's up to you
그건 네게 달렸어
A: Do you think I should make the donation?
B: It's up to you.
A: I really don't know what to do.
B: Don't ask me. I'm not your mother.
A: 네 생각에는, 내가 기부를 해야 할 것 같니?
B: 그건 네게 달렸어.
A: 난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B: 나한테 묻지 말아라. 내가 네 엄마는 아니잖나?
Do you think I should ~? : 네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더 낫을 것 같니?
donation : 기부
He donated blood to a blood center.
그는 헌혈센터에 헌혈을 했다.
It's up to you. = It's up to call.
be up to ~ : ~에 달려 있다.
What is he up to now? : 그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바쁜 거니?

'猫糞'っていう言葉の漢字はどう書くの?
'네꼬바바'라고 하는 말의 한자는 어떻게 쓰지?
A: '猫糞(ねこばば)'っていう言葉の漢字はどう書くの?
B: ねこは動物の'猫(ねこ)'でしょう。それから、ばばは'動物の糞(ふん)'って書きますよ。
A: 糞(ふん)って、うんちのこと?
B: そうだよ。ちょっと汚(きたな)いけどね。そういえば、汚(きたな)いことを'ばばちい'っていうこともあるよ。
A: '네꼬바바'라고 하는 말의 한자는 어떻게 쓰지?
B: 네꼬는 동물의 고양이(猫)였죠. 그리고 바바는 '동물의 대변(糞, 糞)'이라고 씁니다.
A: 대변이라고? 똥을 말하는 거야?
B: 그래. 좀 더럽지만, 그리고 보니까, 더러운 것을 'ばばちい'라고 할 수도 있어.
糞(ふん) : 동물의대변
っていう : 라고하는
言葉(ことば) : 말
うんち : 대변
ばばちい : 더럽다

遷还用説
말할 필요도 없다
A: 你應該怎麼說這話?
B: 這話沒必要說。
A: 怎麼說?
B: 這話沒必要說。
A: 怎麼說?
B: 這話沒必要說。
A: 怎麼說?
B: 這話沒必要說.

守備(수비)
지킬 수, 갖출 비
수(守)는 면(宀: 지붕)+손(寸: 손)으로, 지붕 아래서 손으로 숨겨 지키는 모양이다. 비(備)는 분레 예비 화살을 넣어두는 화살 통을 그린 것인데, 인(人)이 첨부되어 사람이 일을 준비함을 의미한다.
수비(守備)는 전쟁에서 적(敵)을 막고 진지를 지키는 것이다. 공격(攻擊)에 상대 되는 말이다. 공격의 어감(語感)은 적극적(積極的)인 이미지인 반면, 수비는 소극적(消極的)인 이미지이다. 그래서 공격수(攻擊手)는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수비수(守備手)는 그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여 주목받기 어렵다.
하지만 수비가 공격 못지않게 중요함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정치에 있어서도 창업(創業)의 군주보다 수성(守成)의 군주가 더 어렵다고 한다. 왕조(王朝)가 바뀌는 것은 개인의 노력보다 천명(天命)에 달려있지만, 유지(維持)하고 발전(發展)시키는 것은 진실한 인간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승리(勝利)는 항상 그늘에서 노력하는 수비수의 공로(功勞)없는 이루어지지 않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